3. 제3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회의 및 워싱턴 지역 세미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에서는 제2차 임원, 이사 확대 간부회의 및 세미나를 워싱턴 Tyson Hotel 에서 "2002 한인 지도자 대회" 를 마친 후, 설악가든으로 장소를 옮겨, 제3차 임원, 이사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차 회의록을 낭독, 통과시키고, 이민 100주년 분과위원장 서영석 회장이 보고한 "총연 이민 100주년 사업 계획" 을 보고하고 이를 채택했다.

본 대회가 끝나기 전 김창원 미주100주년 기념사업 회장을 대신하여 박윤수 워싱턴 D.C 기념사업 회장이 축사를 겸해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정식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워싱턴 초대회장을 역임한 최제창(95세) 박사가 참석하여 우리 한인들이 구한말 공사가 사용하던 건물을 이번 기회에 사적지로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3차 임원, 이사 확대 간부회의 환영사를 하고 있는 문흥택 워싱턴 회장

이번 행사는 처음 정치포럼으로 계획했으나, 총연이 정치단체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2차 확대간부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2002 한인 지도자 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연사들을 유명정치인에서 실무진으로 방향을 바꾸어 미주류사회에 광범위한 진입을 위한 워크샵 형태로 개최되었다고 기조실장 정세권 위원장이 밝혔다.

채택문

미주 한인회 총연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

1. 2003년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해로, 2003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날로 각시, 각주, 연방정부에서 선포

2. 2003년 1월13일 전 한인회에서 이민 100주년 기념식 거행

3. 이민 100주년 행사 Program book과 Poster 발행 (내용: 이민역사, 한국역사, 관광지 포함과)

4. 미주 한인회 이민100주년 사 편찬

5. Rose Parade 참가 후원

6. D.C 의 초대공관건물 매입추진

7. Sedona (AZ) 의 한국민속촌 건립 적극참여 & 후원

기타: 음악순회공연, 이민 세미나, 사진전시회 등